

[ 바둑 ]

7월에만 9승 1패... '6관왕' 이세돌이 랭킹 2위?

이상한 한국 바둑 랭킹

'현재'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로 이세돌을 꼽는데 주저하는 팬들은 없다.

이세돌은 GS칼텍스배, 물가정보배, 바둑왕전 등 크고 작은 6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다 7월에만 무려 9승 1패의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팬들을 당황케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2007년 8월 프로기사 월별 랭킹에서 이창호가 이세돌을 밀어내고 2달 만에 1위에 복귀한 것.

게다가 7월 눈부신 성적을 거둔 이세돌의 랭킹 포인트는 1만9천638점으로 오히려 지난달 보다 62점이 나 하락했다.

왜 이처럼 랭킹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 한국기원이 과거 2년간의 성적을 토대로 대국점수, 기전 가중치, 기전인정률 등 복잡한 평가방식

10단전 우승자 450점, 한국리그 14전 14패는 700점 등

대국 점수·기전 가중치 등 산정방식 현실과 동떨어져

에 따라 월별 랭킹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이세돌의 성적이 곤두박질한 것이다. 여기에는 4강전(4강에 진출할 보너스 점수 추가) 이상의 '질 좋은' 대국이 없는 데다 지난해 우승·준우승의 기전 가중 점수가 올해부터 자동 감점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지난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550점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8월 기준으로 이전 200일은 100%인 550점을 인정받지만, 다음 달부터는 10%인 55점이 감점되는 방식이다.

반면 이창호는 7월 한달 동안 4승 7패의 성적에 그쳤지만 후지쓰배 준우승, 왕위전 5국 등 가산점이 부여되는 굵직한 대국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문제는 랭킹 산정방식이 정교한 것 같지만 곳곳에서 상식 밖의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 2007 KB한국리그에 선수로 참가할 경우 최대 14판의 대국을 소화한다. 승자는 80~100점(상대 기사의 랭킹에 따라 점수가 변한다), 패자의 경우 50점을 받는다. 계산법이 이렇다 보니 14전14패를 당해도 랭킹 점수에서는 무려 700점을 얻게 된다. 토너먼트전 행사는 10단

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진출, 우승을 위해서는 모두 10판을 이겨야 하지만 우승까지 점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450점에 불과하다.

기사들은 이같은 산정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세계대회 출전권이 랭킹순으로 주어지고, 한국 바둑리그에도 랭킹 38위까지 출전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랭킹 산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한국기원은 오는 2008년 적용을 목표로 랭킹위원회 구성,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랭킹 산정방식에 있어 패자에게 과도한 점수를 주는 포인테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또 토너먼트전에 가중치를 두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지면 탈

8월 프로기사 월간랭킹

Table with 3 columns: 순위, 이름, 랭킹포인트. Lists top 20 players including 이창호, 이세돌, 박영훈, 최철한, 조한승, 박정상, 목진석, 이영구, 윤준상, 강동운, 안조영, 원성진, 온소진, 조현현, 백홍석, 고근태, 김지석, 홍인표, 홍성지, 김승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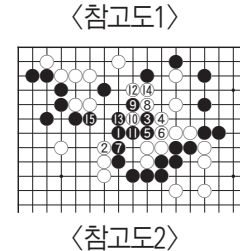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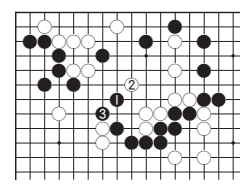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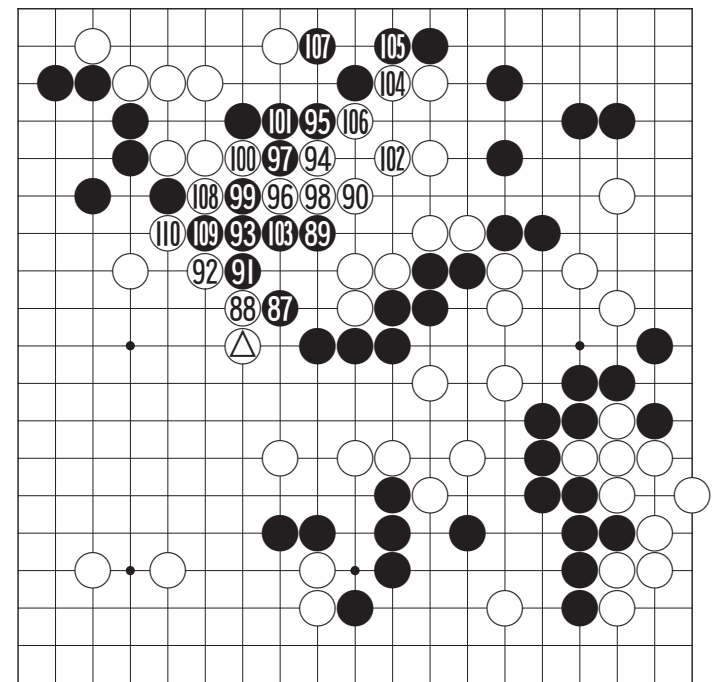
락하는 위험부담이 큰 기전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테니스나 골프의 랭킹제를 비교해서 만들었고, 또 중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오는 2008년부터는 우리만의 새로운 랭킹 제도가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희망은 노림수뿐 6보(87~110)

白 박정규 5단 (KT전남본부)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전보에서 통렬한 두 점 머리를 얻어 맞고 부터는 흑이 일방적으로 쫓기고 있다. 백 스가 또 아픈 곳으로 백은 좌변에 크게 세력을 펼쳐면서 공격해오는 반면 흑은 연결에만 급급하고 있다. 김광식 5단은 손맛을 다시며 흑 87로 도망가면서도 백 88에는 89로 비틀어 은근히 삼면 백 대마가 걸려들기만을 노리고 있는 중이다.

'無冠' 면한 이창호 탄력받나

이세돌 꺾고 바둑왕전 승자조 결승 진출



이창호 9단이 최근 KBS산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6기 KBS 바둑왕전 승자조 준결승에서 이세돌 9단을 174수 끝에 백불계로 누르고 결승에 선착했다.

이창호 9단은 이번 승리로 이세돌 9단에 당했던 4연패를 끊고 2007년 상대전적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두 기사는 KBS바둑왕전에서 한 번 더 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세돌 9단이 패자조에서 살아남는다면 이창호 9단의 다음 대국 결과

에 따라 패자조 결승이나 최종 결승 무대에서 이창호 9단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이날 대국에서 백을 잡은 이창호 9단은 초반 좌변에서 미생마를 수습하며 첫 번째 전투를 시작했다. 이창호 9단이 격렬한 몸싸움을 걸어가지 이세돌 9단 또한 물러서지 않고 대응해 때 이르게 난전이 벌어졌다.

이세돌 9단은 하변의 모양을 집으로 굳히며 중앙에도 막대한 세력을 쌓았으나 우상귀 일대를 모두 삼킨 이창호 9단이 패자조에서 리드해 나갔다.



이세돌, 국수 타이틀 초읽기

목진석 9단 누르고 준결승 선착

이세돌 9단이 국수 타이틀에 바짝 다가섰다.

이 9단이 지난 7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51기 국수전 본선 토너먼트 8강전에서 목진석 9단을 268수 끝에 백불계로 꺾고 준결승에 선착했다.

이세돌 9단은 지난 1995년 입단 한 뒤 한 차례도 국수 타이틀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조남철, 김인, 조현현, 이창호 등이 바통을 넘겨받고 있는 국수 타이틀은 대한민국 바둑 1인

자의 계보로 통하는 기전이다.

이세돌 9단은 박영훈 9단-서건우 4단의 승자와 도전자 결승전 진출을 다했다. 이날 대국에서는 패자조 승부가 갈렸다.

목 9단은 우변에서 50여 집에 가까운 엄청난 크기의 패가 나와 부러부러 타가에 나왔으나 삼면 흑대마를 백에게 모조리 헌납, 돌을 던졌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제51기 국수전의 제한시간은 3시간 60초 초읽기 5회이다.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

안조영, 조한승 누르고 천원전 사냥 순항

안조영 9단이 지난 7일 스카이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회 바카스배 천원전 8강에서 조한승 9단을 꺾고 두 번째 타이틀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안 9단은 초반 우위를 점한 뒤 두터운 행마로 조한승 9단의 추격의

지를 꺾었다. 역전의 실마리를 찾던 조 9단은 결국 163수 만에 돌을 거두었다.

안조영 9단은 이번 승리로 조한승 9단과 상대전적에서 7승 8패를 기록했다.

안 9단의 4강 상대는 고근태 5단



을 누르고 올라온 왕중왕 강동운 7단. 반면 천원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조한승 9단은 토너먼트에서 탈락, 무관으로 전락했다.

명지대 바둑학과 '바둑 지도사' 수강생 모집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에서는 바둑 지도사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2기제를 맞는 바둑 지도사 과정은 온라인 학습과정으로 위주로 운영되며 월 1회 면대면 교육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정수현 교수가 말한다. 1학기에는 바둑의 원리와 이론, 바둑과 아톰스리, 바둑문화사식을 수강하며 2학기에는 바둑교육론, 바둑전문실기, 바둑지도실무 등을 배우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수업료는 50만원. 문의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031-330-6255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cluding '대인동상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and '특급상가 매매·임대'.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properties for sale or rent.